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SEPTEMBER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73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총동창회 · 골든클럽 합동 피크닉 성료

지난 8월 12일, 뉴저지 Alpine Pavilion의 푸른 자연 속에서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총동창회'와 '골든클럽'의 2026년 합동 피크닉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피크닉에는 9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창회를 지켜오신 원로 동문들과 패기 넘치는 신입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정겨운 식사와 흥미진진한 테이블 대항 레크리에이션
참석자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등록을 마친 후, 준비된 정성

어린 도시락을 나누며 정겨운 담소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후 이어진 2부 여흥 시간은 김정필 골든클럽 회장의 위트 있고 활기찬 진행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별 손에 땀을 쥐게 한 '종이컵 피라미드 쌓기 대항전'에 이어, '6070 추억의 가요·시사 상식 및 모교 관련 퀴즈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동문들은 숨겨둔 순발력과 지식을 발휘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고, 현장은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 어깨춤과 춤사위로 하나 된 힐링의 시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특별 초청된 한국무용 전문가 여은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김정필 • 부회장 이영범, 금영천 • 김병순 (사무총장)
편집위원: 금영천, 김병순, 김정필, 여주영, 이영범, [상임고문]정해민, 홍충만, 윤현남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숙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진행된 무용 시간이었습니다. 동문들은 신명 나는 민요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흥겨운 라인댄스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춤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아하고 멋진 손짓과 발걸음을 선보여 큰 분수 같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며 BTS의 '아리랑' 음악에 맞추어 강강술래와 같은 대동제 무용을 펼쳤습니다. 세대와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시간은 잊지 못할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피크닉을 즐긴 동문들은 아쉬운 이별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깊어진 동문애를 가슴에 품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이번 피크닉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뉴욕동창회 및 골든클럽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자리를 밝혀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17 9월 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9월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Pelham / Split Rock Golf에서 모기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호평을 받고 있는 Clearview로 준비하였으며 주위의 친지들의 동반도 환영합니다.

- 일시: 9월 1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 참가비 일인당 120불 (그린피, 디너 포함)
- 총진행: 김병순 사무총장



10/15 가을 단풍관광



단풍 관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뉴욕 거주 동문들을 위해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밴을 운영합니다. (플러싱 오전 8시 30분 출발)

일시: 10월 15일

장소: Bear Mountain State park

일정: 오전 10시 Parking lot 집합

11시 Perkins Memorial Tower 도착

A팀 Hiking 약 1마일 산행;

B팀 Trailside Museum & Zoo 관람 후 차량 이동)

11시 30분 기념 촬영 후 하산

오후 12시 30분 점심

1시 30분 호수가 산책, 오락

3시 출발

정해민 상임고문 9순연

8월 29일 정해민 고문 (법대55)의 구순을 맞아서 맨하탄 컬럼버스 서클에 있는 Per Se restaurant에서 40여명의 가족, 친지, 골든클럽 회원, 사대부고 동문, 의료진 등과 함께 9순연을 가졌다.

지난 여름부터 매우 심각한 2차례의 뇌수술과 재활을 거쳐서 상당히 회복을 하셔서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하셨다. 골든클럽에서는 김광현 홍종만 고애자 여주영 김정필 회원이 참가했으며, 구순패를 직접 전달해 드렸다.



8월 25일에 손경택 홍종만 여주영 회원이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방문하여 문안하고 건강 장수를 기원하였다.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매사추세츠 지역에 거주하시던 조건호 동문께서 뉴저지로 이사를 하시고 골든클럽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름: 조건호

영문: Kon Ho Cho

대학: 공대 화공과(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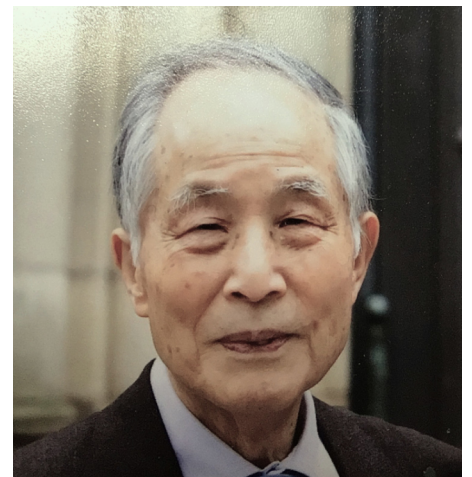
전화번호: (908)415-4223

Email: konhocho@msn.com

주소(home): 200 Grand Cove Way Apt. 2A,
Edgewater, NJ 07020



8월 14일 마당에서 정해민 상임고문의 큰 따님 Susie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편집위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수고에 감사하였다.



8월 Clearview Golf

8월 17일에 5년만에 Clearview Golf장을 찾았다. 코스는 잘 리되어있었고, 관리인들이 대부분 한인들어서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이 대회에는 특히 New York에 있는 여러 회원들이 모처럼 참석하여 26명의 선수들이 함께 즐거운 경기를 하게 되었다. 특히 김영덕 박사 (공대51)는 고령에도 커넥티컷에서 한시간 반을 달려와서 골든클럽과 골프에 대한 애정을 맘껏 보여주었다.

이날 식사와 시상식은 골프장 식당의 배치상 "ㄱ"자로 나누어져 하계되었는데 대화와 시상식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음식이 "골든클럽"기준에는 다소 못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김승호 회원의 식당이 Clearview에서 15분 거리에 있어서 다음에는 식사와 시상식을 그곳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골프장은 참가한 회원들이 워낙 친숙하고, senior tee가 별도로 없어 red tee와 함께 한 영향등으로, 성적이 평소보다 5점 정도 낮게 나와 다음에도 이곳으로 하자는 의견이 속출했다.



Tee-off에 앞서 26명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후 맥주와 햄버거 등을 들면서 골프 내용을 복기



입상자: 조승자 곽선섭 임도혁 권영대 김병순



근접상: 조달훈 곽선섭 성기로

골프대회 성적		
시상	이름	성적
근접상 #4	성기로	17'6"
근접상 #7	조달훈	7'5"
근접상 #12	성기로	18'9"
근접상 #16	곽선섭	8'10"
1등	조승자	14(23)
2등	곽선섭	23(32)
2등	권영대	16(24)
3등	임도혁	16(23)
3등	김병순	24(31)
3등	최병우	17(23)
골프대회 지출		
수입	등록	3,120
	후원금 (김승호)	230
지출	김밥 음료수	-208
	상금	-320
	그린피 /디너	-2,986.16
잔액		-164.16

손녀딸의 도전- 웨스트포인트 링 세리머니와 지옥의 레인저 훈련기

여주영 (명예회원)

입학의 감격이 엇그제 같건만, 벌써 졸업반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입학 전 6주간의 기본 신병훈련(BEAST)을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 동틀녘, 손녀딸을 보기 위해 팻말을 들고 이름을 부르던 기억이 생생한데, 손녀딸은 어느덧 예비장교의 명예와 전통이 담긴 영예로운 반지를 받는, 링 세리머니의 주인공이 되었다.

웨스트포인트 링(ring)은 전통적으로 졸업반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최고 학년으로서 동기들을 이끌고 졸업과 임관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징표이기에 그 지닌 무게와 감동이 남다르다. 21일 예식과 함께 다음날 이어진 성대한 만찬에 참석하고 보니 손녀딸이 걸어온 지난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녀딸이 들려준 바에 의하면,

매년 진화한 혹독한 군사훈련의 여정-

여름방학은 늘 고도의 군사훈련으로 채워져 있었다.

2024년 여름: 3주간의 보병전술 중심의 훈련을 거치고, 헬기 작전 수행인 '공중강습학교(Air Assault School)'에서 악명 높은 "10 toughest days in the Army"를 완수했다. 2025년 여름: 부소대장으로서 35명의 생도를 이끌었고, 독일군 기갑부대 훈련으로 '독일연방군 우수 군인 휘장'을,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독일 사격 휘장'까지 거머쥐었다. 2026년 올여름: 마침내 3주간의 군사지도자 훈련(CLDT)을 통해 한국 평택 미군 기지(미 8군 군사정보 병과)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지옥의 미니 레인저 학교(CLDT)와 생생한 일기-

한국 훈련 직후 학교로 돌아와 마주한 것은 졸업 전 최고난도 유격훈련인 9일간의 '미니 레인저 학교'였다. 손녀딸의 일기장에는 극한의 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밤 10시, 공격을 당해 50파운드 군장을 메고 늪지대로 뛰어들었



다.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젖은 군장과 희미한 야간투시경에 의지해 전진했다. 늪에 빠진 거의 200파운드의 동료들 여럿이 힘을 모아 끌어올리고, 4시간의 대장정 끝에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숲을 벗어났다. 9일 동안 세수는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보조로 하루 2~4시간 잠을 자며 버텼다."

지도와 나침반 하나로 곰이 출몰하는 야생을 헤쳐 나가는 이 훈련은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었다. 덩치와 성별을 넘어 공포를 이겨내는 정신력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끈기와 미소로 일궈낸 찬사-

120파운드의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손녀딸은 늘 미소로 팀을 도왔고, 유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 'A학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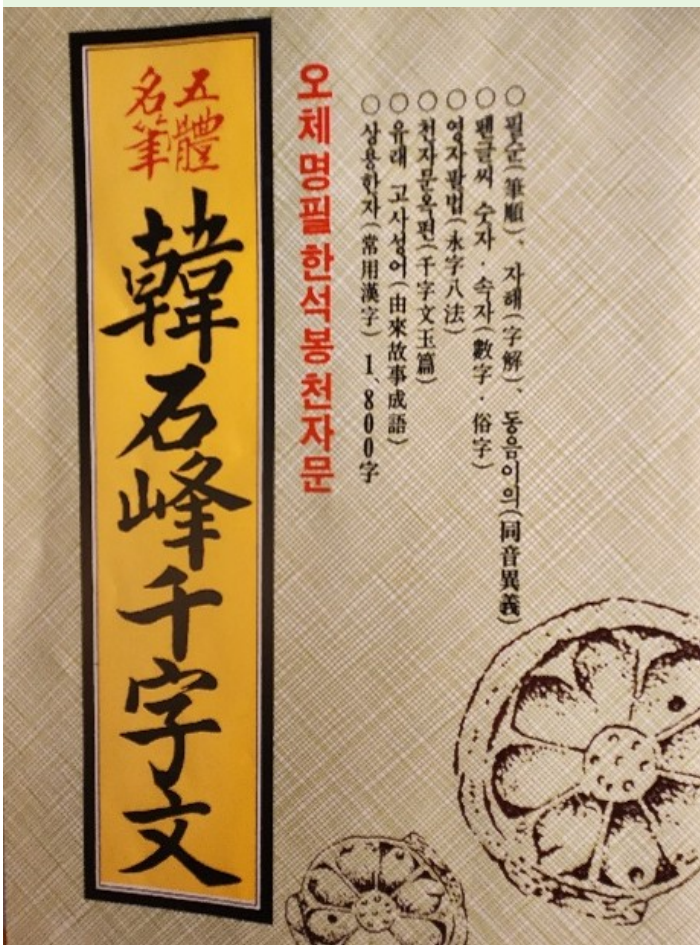
장교 지도교수로부터 "전투병과에 최적화된 인재이며 동료들보다 앞서 있다"는 극찬을 받았고, 동료들 역시 "남녀를 넘어선 진정한 팀메이트"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할머니가 지켜본 20세 손녀딸의 모습-

훈련 직후 일주간의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3시간 동안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온 손녀딸. 도착 즉시 씻고 깊은 잠에 빠져든 모습을 보니 문득 안쓰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지워버렸다. 리더가 되는 길이 어디 쉬운가. 천방지축으로 편히 놓고 지내던 나의 20대 시절과 비교하면, 손녀딸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고된 군 생활 속에서도 가족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 깊은 속내에 더욱 가슴이 뭉클하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손녀딸은 군인의 길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유럽과 북미 간 협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웅대한 국제 외교의 꿈을 품고 있다. 어떤 세파와 장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을 손녀딸이 언젠가 세계 평화와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기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千字文小考 우규환(사대 60)

나는 천자문을 좋아한다. 학교도 들어가기전 아버지께서 친필로 한지에 쓰신 천자문책과 씨름한 어린시절을 평생 잊을수가 없다. 천자문(千字文)은 중국 남조 양(502~549)의 주흥사(周興嗣: 469~521)가 502~521년 사이에 양 무제의 명을 받아 지은 일종의 장편시로, 1구 4자의 사언 고시 250구로 되어 있으며, 모두 다른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 가장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 선조 16년(1583년) 어명에 의해 명필 한호가 쓴 《석봉천자문(石峯千字文)》으로 여러차례 중간되어 왔는데, 현존하는 여러 판본중에서 경북 영주의 박찬성(朴贊成) 소장본과 일본 나йка쿠 문고(内閣文庫) 소장본이 원간본 혹은 이것에 가까운 판본으로 추정된다.

'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 시작해서 '언재호야(焉哉乎也)'의 어조사로 끝나는데, 자연 현상부터 인륜 도덕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의 글귀를 수록하여 한문 입문서로 널리 쓰였다. 天地玄黃 宇宙洪荒 8글자씩 구분하면 125개 구절이 되는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가 귀에 익숙한데 어째서 검은 하늘이라 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1장1절 말씀이다.

빛이 있기전에는 어두움의 하늘이 칠흠같이 캄캄했을것이다. 성경에 시편 150편이 있는데 천자문을 한문시편(125편)이라 칭하는 이유를 알듯하다.

天地玄黃 宇宙洪荒 (천지현황 우주홍황)

日月盈昃 辰宿列張 (일월영측 진숙열장)

해와 달이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퍼져 있다.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가을에 수확하며 겨울에 저장한다. 윤달이 남아 해를 이루고, 율려가 양의 가락을 이룬다. 구름이 올라가 비가 되며, 이슬이 맺혀 서리가 내린다.

尺璧非寶 寸陰是競 (척벽비보 촌음시경)

한 자 되는 구슬이라도 참된 보배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도 다투듯이 아껴야한다

資父事君 日嚴與敬 (자부사군 율엄여경)

아버지 섬김을 바탕으로 임금 섬겨야 하니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上和下睦 夫唱婦隨 (상화하목 부창부수)

위에서 따사로워야 아래에서 화목하고, 지아비가 이끌면 지어미는 따른다.

外受傳訓 入奉母儀 (외수부훈 입봉모의)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받든다.

知過必改 得能莫忘 (지과필개 득능막망)

허물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잊지 말아야 한다.

罔談彼短 靡恃己長 (망담피단 미시기장)

남의 모자란 점을 말하지 말고, 나의 좋은 점을 믿지 말라.

천자문은 단순한 한자 암기책이 아니라, 역사·윤리·자연·철학 등을 함축한 고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후 논어, 맹자 같은 고전 학습의 기초가 되었다.

전설에는 주흥사가 무제의 명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야 했으나 마지막 4자를 짓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데, 홀연히 귀신이 나타나서 어조사 謂語助者 焉哉乎也(언재호야)의 마무리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완성한 후에 보니 머리털이 하얗게 세었다고 하여 "백수문(白首文)"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슬기로운 쇼핑 생활

손 대 흥 (미대 79)

오늘도 저녁 반찬과 내일 아침 식탁을 고민하시며, 장 보러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이든 싸고 풍부했던 미국의 삶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오른 물가에 오랜만에 그로서리에 가셨다가 흠칫 놀라곤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 미국 물가는 팬데믹 이후 5년간 약 23.7% 상승했고, 가구당 월평균 식음료비 역시 27.5%가량 올라 물가상승률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이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아시아계 식품소매점의 상품 가격 인상이 미국 평균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음료 원가 인상, 해운 운임 폭등, 미 행정부의 수입 관세 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 내 도소매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물가 속에서도 먹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그로서리들을 용도에 맞게 순발력 있게 활용하는 ‘슬기로운 쇼핑 생활’입니다.



Costco 가격표 속에 숨겨진 비밀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는 기본적으로 파격적이지만, 가격표의 끝자리를 잘 보면 더 스마트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97로 끝나면 매장 자체 재고 정리를 위한 추가 할인 상품이고, 우측 상단에 별표(*)가 있다면 더 이상 재입고되지 않는 이월 상품입니다. 또한 *.69, .68, .70으로 끝나는 가격은 제조업체로부터 특별 할인가를 제공받은 최저가 상품이며, *.99로 끝나는 것만 별도 할인 없는 정상이입니다.



대량 구매가 부담스러울 땐 (ALDI, LIDL)

코스트코처럼 싸게 사고 싶지만 대용량이 부담스럽다면 유럽계 디스카운트 스토어인 ALDI나 LIDL 방문을 추천합니다. 매장 규모는 작아도 식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ALDI의 최고급 Black Angus Beef나 LIDL 매장에서 매일 굽는 베이글과 크

로와상은 일반 마트의 반값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차나 계산 대기 시간이 짧아 쾌적하며, 최근에는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라인업도 아시안 마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곤 합니다.

유기농 식재료를 알뜰하게 (Trader Joe's)



Whole Foods Market의 유기농 제품이 부담스럽다면 Trader Joe's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동일 유기농 품목 대비 Trader Joe's가 20~25% 더

저렴합니다. 또한 냉동식품 코너의 해물전, 볶음밥, 유기농 조미김 등 한국식 먹거리도 다양해져 알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로컬 마트의 자체 브랜드(PB/PL) 활용 (ShopRite, Stop & Shop)



ShopRite나 Stop & Shop을 이용할 때는 소매업체의 자체 브랜드(PB)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유명 브랜드(NB)에 비해 마케팅비가 들지 않아 20~30%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훌륭합니다.

ShopRite의 *Bowl & Basket*(식품)과 *Wholesome Pantry*(유기농), Stop & Shop의 *Nature's Promise*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미국 그로서리 매출의 20% 이상을 자체 브랜드가 차지할 만큼 이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안 마트와 로컬 마트의 지혜로운 교차 이용

갓 손질한 생선이나 한식 전용 재료는 H MART 등 한인 마트가 필수적이지만, 두부나 대파, 사과 같은 기본 식재료는 이제 가까운 ShopRite나 ACME 등 로컬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식품소매업계에 몸담아온 저에게도 새로운 매장을 둘러보고 싸고 좋은 세일 품목을 발견하는 것은 소소한 삶의 즐거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익숙한 마트에서 잠깐 눈을 돌려보세요. 구글 맵(Google Map)을 켜고 주변의 새로운 매장들을 찾아 방문해보는 것만으로도, 먹는 기쁨 못지않은 ‘사고 맛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쇼핑 생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 명단 (111명 / 2026-8-25)

강교숙	김문언	민준기	신두식	이승준	정도현	최학주
강에드	김병순	박기환	신진식	이 준	정수일	한민우
강영선	김상만	박상원	신응남	이대연	조건호	한용오
계동휘	김승호	박준구	오순문	이대영	조달훈	한태진
고애자	김영덕	박희병	오용호	이영범	조승자	한용희
곽선섭	김영만	배상규	오인석	이용대	정준영	허용웅
권문웅	김우영	성기로	우규환	이위곤	정해민	홍정표
권정덕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전구	조상근	홍종만
홍선경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대	주상선	홍예경
권영대	김창수	손대홍	윤상영	이종석	주재양	
권태전	김충정	남종현	윤재욱	이준행	진봉일	
금영천	김치갑	손옥화	윤종숙	이행순	천병수	
김광수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이홍빈	전중화	
김광현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도혁	최병우	
김동건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임호순	최준희	
김득해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전문준	최한용	
김문경	노용면	송혜순	이상원	전병삼	문 선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85명 / \$8,500 / 2026-8-25)

강에드	김병순	박준구	신진식	이승준	전병삼	문 선
곽선섭	김영덕	박희병	오순문	이영범	정수일	한태진
권문웅	김영만	배상규	오용호	이용대	정준영	한용희
권정덕	김우영	성기로	오인석	이위곤	조건호	허용웅
홍선경	김익성	손경택	우규환	이종대	조달훈	홍종만
계동휘	김정필	손대홍	육재희	이종석	조승자	홍예경
권영대	김충정	남종현	윤선구	이행순	조상근	홍정표
금영천	김태일	손갑수	윤종숙	이홍빈	주상선	(2027)
김광현	김한중	송근숙	이강홍	임도혁	진봉일	윤종숙
김동건	김현중	송학린	이대영	임호순	천병수	
김득해	민준기	송혜순	이대연	윤상영	최병우	
김문경	박기환	신두식	이상무	정해민	최준희	
김문언	박상원	신응남	이상원	전문준	최한용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28명 / \$12,100 2026-8-25)

강에드 300	김영덕 100	오순문 200	이행순 300
계동휘 300	김영만 500	오용호 500	전문준 500
금영천 300	김정필 300	우규환 200	정해민 2400
권정덕 500	김한중 300	이강홍 500	최준희 300
김광현 300	성기로 400	이대영 200	최한용 500
김동건 100	손경택 900	이상원 200	홍종만 1000
김문경 300	신진식 500	이종대 2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김득해 전병삼 조건호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23명 참가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75명 참가
4월	2일(목)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23일(목)	골프대회 (Sunset Valley 27명참석)
5월	7일(목)	Masterclass 3강 AI 비서 만들기
	28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6월	11일(목)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7월	16일(목)	골프대회 Walkill
	30일(목)	Masterclass 미국 독립 전쟁
8월	12일수)	피크닉 (Alpine Pavillion) (92명 참가)
	20일(목)	골프대회 -Clearview (26명 참가)
9월	10일(목)	Masterclass -Financial Literacy
	17일(목)	골프대회
	9/27-10/4	Canada 여행
10월	15일(목)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1월		Florida 골프여행
3월	6일	2027 신년교례

9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광현 (미대57)
송학린 (법대59)
이행순 (미대60)
허용웅 (상대63)
홍예경 (가족)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 든 클 럽 회 비 납 부 양 식

성명과 바뀐 내용만 적어주세요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연회비 \$100
단과대	학과	입학연도	후원금(\$)
전화번호	이메일		입회비 \$200
주소			